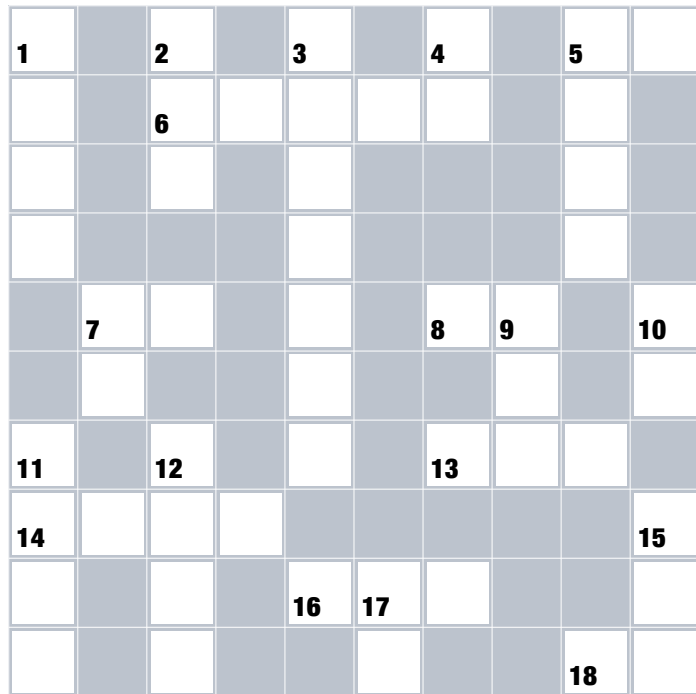


퍼즐 맞추기



무비 피라미드

아래 피라미드 블록은 한국영화 7편의 제목을 쪼개어 쌓은 것입니다. 맨 꼭대기에 들어갈 영화 제목 블록과 이 영화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맞춰보세요.



한글로 풀어주세요. 1000

낱말 찾기

가로나 세로, 대각선으로 한국영화 4편을 찾아보세요

아	웨	총	주	문	진
빠	용	딩	아	친	구
주	서	사	드	요	길
유	는	람	곤	레	프
소	없	을	경	에	스
즐	다	사	사	건	건

정답

간	간	이	이	하	를
▽	로	은	릉	정	▽
표	로	군	릉	극	성
관	정	이	이	하	를
산	간	하	은	정	하
간	금	하	정	하	하

가로 열쇠

- 5** 과한에게 딸과 아내가 무참히 살해당했지만 담당검사는 범인들을 풀어준다. 화가 난 제라드 버틀레 정부를 향해 스파르타식 복수를 보여준다. <모범00>
- 6** 2009년 국내 유일의 장편 애니메이션. 고영숙, 황순복 부부의 젊은 시절을 들여다본다.
- 7** 올 겨울 스크린에선 하얀 눈 대신 미트볼이 내린다. 음식 재난 애니메이션. <OO에서 음식이 내린다면>
- 8** 뉴욕시에서 발행되는 미국 시사주간지 OO이 박찬욱 감독의 <박쥐>를 2009년 10대 영화에 선정했다.
- 13** 2005년 해체된 UN의 멤버 '이 가수'가 일본영화 <카페 서울>을 통해 스크린에 데뷔한다. 국내 2일 개봉.
- 14** '2009 영진위 시나리오 공모전' 대상 수

상작

- 16** <아빠가 여자를 좋아해>에서 과속 스캔들로 자신의 수상한 과거가 드러날 위기에 처한 괴로운 미녀 역을 맡은 여배우.
- 18** '이 영화'가 2009년을 빛낸 힐링 시네마(Healing Cinema) 베스트 10에 1위로 선정됐다. 배우 최강희와 김영애의 모녀 연기가 인상적인 작품.

세로 열쇠

- 1** <산책가> <남매의 집> 등 단편영화 4편을 한 번에 만날 수 있게 됐다. 4事件件, 21일 개봉.
- 2** 2012년의 재상이 2019년에도 계속된다. 풀리처상을 수상한 코맥 매카시의 베스트셀러를 원작으로 한 영화로 젯더미로 변한 2019년의 지구와 살아남은 사람들을 보여준다.
- 3** 배우 이성재가 '이 작품'으로 3년 만에 스크

- 린에 복귀한다. 2002년 한일 월드컵 우리나라 국가대표팀의 선전을 지원하는 문구였다.
- 4** 영화사 진진이 운영하는 대학로 하이퍼텍 00에서 2009년 화제의 영화를 재상영하는 특별전이 열린다.
- 5**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올해의 좋은 영상물'로 송일곤 감독의 '이 영화'를 선정했다.
- 7** <파주>의 배우 서우가 전도연 주연의 화제의 리메이크작인 '이 영화'에 캐스팅됐다.
- 9** <전우치>에서 집안을 망치는 과부와 배우를 꿈꾸는 스타일리스트를 연기한 여배우.
- 10** 청소년관람불가의 청소년영화 '이 작품'이 '감독판'으로 재편집돼 15세 관람가 판정을 받았다. <OO-wish>
- 11** 정승필을 찾아라! <정승필0000>.
- 12** 서울독립영화제 2009 대상작. 세 여자가 도시를 떠나 농촌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

는 모습을 담은 다큐멘터리다.

- 15** 12회 디렉터스컷 어워드의 '올해의 연기자상'에 송강호와 함께 <마더>의 '이 여배우'가 상을 받았다.
- 17** 니콜 키드먼, 페넬로페 크루즈, 마리온 꼬띠아르가 천재 영화감독의 뮤즈가 되어 돌아온다.

지난호 정답

		한		디	여
거	친	녀	석	들	스
구	규	펜	트	하	우
형	사			릭	들
	이	범	수	트	
김				한	기
치			송	강	호
	달		윤	우	지
캘	리	포	니	아	시
기		모		절	라

경인년 새해가 밝았다. 특히 2010년은 60년 만에 돌아오는 백호랑이의 해라는데... <뉴 문>의 로버트 패튼, <여배우들>의 김옥빈이 86년생 친구고 <나인>의 페넬로페 크루즈와 <황해>로 돌아올 나홍진 감독이 74년생 동갑이다. 그밖에 문채원, 엄태웅, 문소리, 최민식, 강제규 감독 등이 올해 운세가 좋을 호랑이띠들. 어쨌든 한국영화도 2010년 대박운세를 기원하며 1월 개봉작의 배우들에게 물었다. "2010년 한국영화를 한마디로?"

Cartoon 4컷 만화



2010년 한국영화를 한마디로요? 주유소 습격사건을 막을 만한 '젊음' 아니겠어요?

아름다운 '하모니'로 할래요.

'웨딩드레스'처럼 화려했으면 좋겠어요.

훗, 할리우드에 한마디 하지. 2010년 한국영화, '용서는 없다'